

천호성 당선인 인수위 10일 공식 출범

위촉식·출범식·첫 회의 잇따라... 민선 20대 전북교육 청사진 마련 본격화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사진)이 오는 10일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교육행정 인수 절차에 돌입한다.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위촉식과 출범식, 제1차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향후 전북교육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별관(창조1관) 2층 당선인실에서 인수위원 위촉식이 열린다. 천호성 당선인을 비롯해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이 참석해 위촉장을 받고 공식 활



동을 시작한다. 이어 오전 10시 30분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브리핑실에서 인수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된다. 출범식에서는 인수위원회 운영 계획과 향후 교육정책 추진 방향이 소개될 예정이며, 천호성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인수위원,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전북특별자치

도교육청 별관 회의실에서 인수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 등 12명이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과 공약 이행 방안, 조직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천호성 당선인이 제시한 교육 비전과 핵심 정책을 구체화하고, 교육청의 주요 업무와 현안을 점검해 오는 7월 출범하는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반영하

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회는 총 12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천호성 당선인 선거캠프 관계자, 나머지 9명은 교육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인수위원회가 전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교육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천호성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공약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 뒤 오는 7월 1일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교육의 본질·가치 이어가겠다” | 전북교육청, 순직교육자 추모제 거행... 헌신한 교사들의 뜻 기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교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내 순직교육자 추모탑에서 ‘제40회 순직교육자 추모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제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 헌신하다 생을 마감한 순직교육자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되새기고, 교육자로서의 사명과 가치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홍식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관계자, 순직교육자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순직교육자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추념사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며 묵묵히 교단을 지켜오신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은 수많은 제자의 가슴속에 살아 있다”며 “그 숭고한 가르침은 오늘의 전북교육을 떠받치는 든든한 힘이자 미래를 향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내 순직교육자 추모탑에서 ‘제40회 순직교육자 추모제’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이어 “오늘의 추모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생님들이 남긴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전북교육 현장에 온전히 이어가는 다짐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순직교육자들의 희생과 교육정신을 계승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 가치 실현과 교육공동체의 존중 문화 확산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한편 순직교육자 추모제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교육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성장 지원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부모의 자녀 이해와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가 학생 성장의 핵심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6 학생성장 지원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부모 역량을 높이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교육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기획했다.

강연은 오는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강연은 오는 15일 전북대학교 의화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의 이호 교수가 맡는다. 이 교수는 “오늘을 더 잘 살기 위한 삶의 통찰”을 주제로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8월 20일에는 조순미 교수가 ‘이웃을 믿는 부모의 말투’를 주제로 강연한다. 조 교수는 부모와 자녀 간 건강한 의사소통 방법과 자녀존중 감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가정 내 긍정적인 소통 문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달할 계획이다.

두 강연은 모두 전북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오후 7시부터 진행되며, 학부모는 물론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각 강의의 1주일 전부터 사전 안내되는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AI 수업 공개로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15~26일 ‘현장지원단 2차 수업나눔’ 운영... AI 교원 성장체계 본격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역량을 갖춘 교사들의 실제 수업을 공개하며 미래형 교실 수업 혁신 확산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인공지능(AI)·디지털 수업 현장지원단 2차 수업나눔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업나눔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총 48개 학급에서 진행되는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수업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도내 교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학급당 최대 1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참관 신청은 오는 10일 자정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받는다.

이번 행사는 전북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 지난 5월 공동 운영하는 2026 전북 인공지능(AI)·디지털 직무연수 전문가 과정의 성과를 현장에서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현장지원단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 지난 4월 실시된 1차 수업나눔에서 제기된 현장의 고민과 개선 과제를 분석하고, 전북형 인공지능(AI)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수업을 재설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2차 수업나눔에서는 AIER(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활용 수업, AI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수업, AI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육 자료 활용 수업, AI에듀테크 적용 수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인공지능(AI)·디지털 수업 현장지원단 2차 수업나눔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에 진행된 1차 수업나눔.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미래형 수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수업 참관 이후에는 해당 교실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수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이어지며, 지역별·학교급별 교사 네트워크 구축과 우수사례 공유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4월 1차 수업나눔 5월 전문가 연수 6월 2차 수업나눔 2학기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로 이어지는 전북형 인공지능(AI) 교원 성장 체계의 첫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은 “인공지능(AI) 교육정책의 성공 여부는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2학기

부터는 현장지원단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연수를 운영해 교실 속 AI 수업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영숙 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차원을 넘어 교수·학습·평가를 AI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이었다”며 “8월 수업나눔은 그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교사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수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교권 회복, 판타지 아닌 제도로”

전북교총,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관련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참교육의 흥행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 현상이 아니라 교권 붕괴가 이미 사회적 공통 인식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천호성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공약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 뒤 오는 7월 1일 제20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단체는 “현장 교사들은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 등으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부 학생들로부터 아무 것도 못 하쥬 라는 조롱을 듣는 현실에서 드라마 속 판타지는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만 줄 뿐 교사의 무력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이미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은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 아니라 교권 침해 상황에서 제도가 반드시 작동한다는 신뢰”라며 “교권 회복의 핵심은 물리적 권위가 아니라 제도적 권위가 교사 뒤에 서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실질적인 소용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교권 붕괴가 드라마 소재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직접 교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당선된 교육감들에게도 교권 보호 공약 이행을 주문했다.

전북교총은 “교권 보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면 취임 이전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개하고, 이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구현해야 한다”며 “교원단체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직 인수 과정에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학교 온열질환 예방 나섰다

전북교육청, 26일부터 도내 50곳 대상 현장점검

급식종사자 많은 학교 8곳은 노·사 합동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현장점검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6년 온열질환 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학교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합동점검’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노·사 합동점검반은 급식종사자가 많은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근로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나머지 42개 학교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원한 물 제공 여부 △냉방기 및 통풍장치 운영 상태 △적정 휴게시설 설치와 휴식시간 보장 △냉각조기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여부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점검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개인 보냉장구 지급과 식염포도당·이온음료 제공 등 예방 물품 지원 실태도 중점적으로 확인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서 학교 급식실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다문화 학생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전북교육청,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과 학습 적응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정 자녀 증가에 따라 한국어교육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도내 161개교에서 총 313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47명,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64명, 고등학교 18명으로 집계됐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은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 개개인의 한국어 수준을 진단한 뒤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

의 언어 적응을 돕고 학교생활과 학습 참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학기 중 국제에 입학하는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신청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실시한 1차 상시 신청에서는 33개교 42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어교육 지도 특강과 전북 다문화교육 정책 안내, 운영 방침 설명,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우수 사례 발표와 교수법 연수를 중심으로 한 2차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